



충청지역

느티나무

민족정기 박탈 쇠말뚝 대신 심은 느티나무

✿	지정번호	옥천-33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정년도	1994		효목리 산 86-1
	관리기관	옥천		36° 18' 41.00" N
	수령	427년		127° 49' 30.68" E
	수고	19m		
	흉고둘레	6.3m		

마을의 끝 언덕 위에 있는 보호수(옥천-33) 느티나무는 단아한 재실 옆의 돌 축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다. 보기 좋은 돌담과 기와지붕이 있는, 송덕정사라는 재실은 전주 이씨 집성촌인 이 마을 선조의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또한 그 옆에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정자가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427년이다. 나무높이는 19m, 가슴높이둘레는 6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30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가지 줄기가 크게 2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를 사방으로 고르게 펼친 모양이다. 생육상태는 좋은 편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명나라 군대와 관련하여 오래도록 이어오고 있다. 임진왜란 시기이었다. 명나라 군사들이 마을 뒷산에 주둔하며 산봉우리 아래에 쇠말뚝을 박으려고 하였다. 쇠말뚝으로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박탈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마을의 선비들이

나섰다. 선비들은 명나라 군사들이 돌아간 뒤에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느티나무를 심었다. 현재의 보호수 느티나무는 그때 심은 나무 중의 하나이다. 마을의 정자목이면서 수호목으로 오래도록 살고 있다. 한편 느티나무가 있는 효목리의 목동마을은 예전에 나무가 많아서 목골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못이 있는 마을이어서 못골이라 부르다가 목동마을이 되었다. 전주 이씨 집성촌이라 할 수 있는 이 마을에서 전하는 또 다른 전설이 있다. 옛날에 이 고을 사또의 어여쁜 딸이 있었다. 딸은 인근의 느티나무에서 잘 노는 소녀였다. 소녀는 그러던 중 병이 들었는데, 이때 절에서 일하는 소년이 간호하여 병을 낫게 하였다. 그런데 소녀는 사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함께 가야만 하였다. 그 후 소년은 정들었던 사또의 딸을 그리워 하다가 바위 위에서 죽었다.